"미래세대 문화교류 강화"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 선언문' 채택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이 지난 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전주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해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2023 전주 선언문'이 공동으로 채택·발표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중국 후허핑 문화여유부장,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대신과 함께 '전주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북아 문화·인적 교류의 전략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번 회담이 연내 개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 선언문'은 3국의 미래인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 간 교류 강화,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및 국제적인 과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기관 간 연계망 강화, 미래 공동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국제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3국은 2014년부터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김해시, 중국 웨이팡시·다롄시, 일본 이시카와현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선정패를 수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간 문화교류는 미래세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적 열정을 서로 나눌 때,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축전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펼칠 것"이라며 "'2030 부산엑스포'는 글로벌 문화교류와 미래세대의 꿈이 펼쳐지는 무대, K-컬처가 화려하게 작동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7일에는 일본, 중국과의 양자회의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대신과의 회의에서 "지난 5월 양국 정상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문체부는 한일 미래세대가 문화교류를 통해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과 2025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후허핑 문화여유부장과의 회의에서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젊은 세대가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갈 수 있도록 문체부도 정책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 관광교류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문화적 다양성 속 조화와 화합'을 주제로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을 관람했다. 환영 만찬에서는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를 통해 문화를 통한 우정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시스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혹서기 휴식 마치고 16일~10월까지 매주 토·일 진행

남원시는 2007년부터 17년 동안 시민이 연기하고 연출하고 있는 남원 대표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 혹서기 휴식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전했다.

신관 사또 공연은 남원의 대표 콘텐츠인 판소리 춘향전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각색한 퓨전 공연물로, 시민 1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남원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출발지인 사랑의 광장에서 각 배역별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이고, 공연형 거리 퍼레이드로 춘향교 삼거리를 지나 광한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광한루원 도착 후 기수 도열을 시작으로 취타대의 연주, 육방팀의 댄스, 기생팀의 부채춤, 마당극 춘향전의 기생점고 등 마당극 춘향전이 1시간여 펼쳐지며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주리체험, 사또를 이겨라 윷놀이, 관광객 댄스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춘향제 우수 길놀이팀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7일 공학관에서 목포대학교, 우석대학교와 지역전통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대-목포대-우석대, 적극 협력

지역전통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공학관에서 목포대학교, 우석대학교와 지역전통문화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대학은 △대학의 혁신자원 공유 △권역 간 문화 교육관광산업 전략 공유 △캡스톤 강의 개발 및 대학 간 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동 연구 및 교육, 인적자원 교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대 RIS 단장이 '제주대학교의 LINC 사업은 어떻게 지역에 공헌하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주대학교 LINC3.0 사업단 김상진 단장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의 교육관광산업을 고도화 해 지역 문화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대학 협의체는 오는 10월 19~21일 전주와 진도 일원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원들과 함께 '호남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산학관 공유협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나니와 신인선의 우리가락 힐링 콘서트' 김제서 열린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국악과 트로트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김나니와 신인선의 우리가락 힐링 콘서트'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소리꾼 김나니와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장르불문 실력파 가수 신인선이 국악의 아름다운 음색과 운율, 그리고 트로트의 감성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한다.

김나니는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판소리 부분에서 장원,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며 실력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소리꾼이다. 이후 KBS '국악한마당'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며 다양한 세대의 대중들에게 입지를 굳혔다.

전국을 강타한 화제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 9위 출신 신인선은 '미스터트롯' 출신 참가자 중 최초로 미국에서 단독 순회공연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층이 두터우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뮤지컬에 출연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실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가락의 선율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국악장르와 대중적인 인기의 트로트로 신명나는 일상을 즐기고 우리가락 힐링 콘서트로 한국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고, 다양한 장르를 사랑하는 관객 모두에게 매혹적인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권 판매는 1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